



**장계농협 하정식·김민옥씨 '이달의 새농민상'**

장계농협은 지난 2일 농협중앙회가 선발·시상하는 '새농민상'에 장계농협 조합원인 하정식·김민옥 부부가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다고 밝혔다.

'새농민상'은 자립·과학·협동의 새농민 정신을 바탕으로 선진 영농기술을 실천하고, 지역 농업 발전과 농가 소득 증대에 기여한 우수 농업인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이번에 수상한 하정식·김민옥 조합원은 장수군 계북면에서 토마토 농업에 종사하며, 꾸준한 품질관리와 영농기술 개선을 통해 안정적인 농업 기반을 구축해 왔다. 특히 농산물의 고품질 생산과 판로 확대, 지역 농업인과의 정보 공유 등에 앞장서며 지역 농업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또한, 평소 농협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지역사회 봉사활동과 농업인 간 협동 분위기를 조성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장계농협은 이번 수상이 개인의 영예를 넘어 지역 농업인 전체의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관광협의회, 농촌일손돕기 추진**

정읍시관광협의회(정우회, 회장 박일)는 정읍시 범농협 및 유관기관 임직원들과 최근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촌 일손부족 지원을 위해 농촌일손돕기를 실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정읍시관광협의회(정우회, 회장 박일) 등 27개 기관단체장, NH농협정읍시지부(지부장 김순기), 농신보정읍권역보증센터(센터장 홍영석), 전북광역연합사업단 정읍원예농협(조합장 이대진), (사)정읍시지역봉사센터(이사장 임찬규) 등 35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활동에는 농협 임직원과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여해 일손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구슬땀을 흘렸다. 참여자들은 사과 적하 작업을 중심으로 과수원 환경 정비 등 다양한 작업을 함께하며 농업인의 어려움을 체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읍=김대환 기자



**남원원예농협, 영농철 농촌 일손돕기 나서**

남원원예농협(조합장 김용현)이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과수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돕기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일손돕기에는 김용현 조합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참여해 농번기 인력난 해소에 힘을 보탤 예정이며, 농가는 "적과 시기를 지나칠까 걱정이 많았는데, 원예농협이 적극적으로 도와줘 큰 시름을 덜었다"며 감사를 전했다.

원예농협은 고령화와 인구 감소로 고충을 겪는 농가를 위해 매년 전사적인 일손돕기를 이어오고 있으며, 영농자재 지원과 맞춤형 지도·지원 사업을 확대하고 있다.

김용현 조합장은 "농촌 고령화와 인력 부족이 심화되는 만큼 앞으로도 실질적인 현장 중심의 지원이 이어가 농업·농촌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정윤성(JTV 전주방송 보도국장)씨 장인상= 별세: 2일, 빈소: 전주시민장례문화원 귀빈실, 발인: 4일 오전 7시 20분, 장자: 전주 송화원, 연락처: 063-263-4444

**도내 스피치인들의 화합의 장**

**제39회 전북스피치인 한마음축제 성료**

(사)한국스피치옹변협회 전북지부가 주최하고 전북도내 평생교육원 스피치마당 원우회가 주관하는 '제39회 전북스피치인 한마음축제'가 지난날 30일 전주 완산 생활체육공원 공연장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전북스피치인 한마음축제 전북특별자치도내 스피치인들의 역량 강화와 교류·친목을 위하고 건전하고 명랑한 사회건설에 이바지하기 위해 매년 열리고 있다. 올해는 (주)케이코퍼, 오리진 유통, (유)한솔종합중기 후원했다.

이날 행사는 권태오 한국스피치옹변협회 중앙회장 김양욱 대회 분부장, 이규환 대회장, 김해금 홍보위원장 김기수 총괄위원장, 이호기 준비위원장, 김평호 홍보위원장, 윤세춘 추진위원장 등 내빈들과 시민들이 참석했다.

행사는 스피치인 재능 발표와 행운권 추첨, 공로 표창장 수여식 등으로 꾸며졌다.

공로 표창장 수여식에서 이규환·김평호·김해금·윤세춘씨가 공로패를 수여받았고 신미자·유자·오영란·소진희·김귀녀·박민경·오건수·박형만·정미영씨가 공로 표창을 수여받았다.

스피치인 재능 경진에서 장기지방 부문에서는 진문택씨가 대상을, 서경원씨가 최우수상을 수상받았다. 정경



은씨는 우수상을, 심병연씨는 우등상을 수상받았으며, 안정혜씨와 김영한씨는 각각 장려상과 인기상을 수상받았다.

웃음이 부문에서는 유태성·성금례씨가 1위, 이규환·소진희씨가 2위, 공성용·유자씨가 3위를 차지했다.

화합대상은 박형만씨와 김평호씨가 수상받았다. 김양욱 대회 분부장은 인사말을 통해 "명랑하고 건전한 지역사회 건설에 이바지하자"고 했다.

이규환 대회장은 "이번 행사로 좋은 추억을 쌓아가고 서로간의 상호 도움되는 스피치 옹변인이 되자"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조합원 실익 증진·도농상생 실천 공로 인정**

**김조흥 왕궁농협조합장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

왕궁농협 김조흥 조합장이 농협 이념과 핵심가치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

왕궁농협은 김조흥 조합장이 지난 2일 열린 농협중앙회 정례대회에서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새로운 농협 조합장상'은 희망농업·행복농촌 실현을 위한 '새로운 대한민국 농협' 구현에 기여하고 농협의 정체성과 핵심가치를 현장에서 실천한 우수 조합장에게 수여되는 상이다.

김 조합장은 농협의 비전2030과 핵심가치를 바탕으로 조합원 소득 증대와 영농비 절감을 위한 각종 지원사업을 확대하며 조합원 실익 증진에 힘쓴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특히 경기도 용인시 기후농업과 도농상생 공동사업 협약을 체결해 도시농업과 농촌농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상생가치 실현에 앞장선 점이 주요 성과로 꼽혔다.

이와 함께 농업·농촌 발전을 위한 현안을 지역 정치권에 적극 건의하는 등 농정활동을 펼쳐왔으며,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과 농촌왕진버스 운영을 통한 고령농 돌봄 등 다양한 사회공헌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지역사회와 조합원들로부터 신뢰를 얻고 있다.

김조흥 조합장은 "이번 수상은 조합원과 임직원 모두가 함께 노력해 이뤄낸 값진 성과"라며 "앞으로도 조합원 실익 증진과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고, 현장을 중심으로 농업인과 조합원을 섬기는 자세로 본연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오상근 기자

**근대역사박물관 일대서 '맑고 깨끗한 군산 만들기' 환경정화**

**군산시 적십자지회 어깨동무봉사회**

군산시 적십자지회 '어깨동무봉사회(회장 심규순)'가 지역사회를 위한 따뜻한 나눔과 환경 보호에 앞장섰다.

어깨동무봉사회 심규순 회장을 비롯한 회원들은 지난 지난달 31일 오후 3시 군산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군산근대역사박물관 일대에서 환경정화 및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전개했다.

이번 활동은 본격적인 관광 시즌을 맞아 군산을 찾는 방문객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도시 이미지를 심어주고, 지역 주민들에게 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봉사 활동에 참여한 심규순 회장과 회원들은 박물관 주변 광장부터 박물관 주변 광장부터 인근 역사 거리, 주차장 구석구석을 돌며 버려진 담배꽂이, 일회용 컵, 플라스틱 병 등 각종 생활 쓰레기를 수거하는 데 구슬땀을 흘렸다.

심규순 어깨동무봉사회장 한미리 "우리의 작은 실천이 군산의 자랑인 근대역사박물관을 찾는 이들에게 기분 좋은 추억을 선물하고 깨끗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깨동무봉사회는 이 뜻을 위



한 봉사는 물론, 지역 환경을 가꾸는 일에도 지속적으로 동참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군산시 적십자지회 어깨동무봉사회는 평소에도 취약계층 지원, 지역사회 봉사 활동 등 다양한 나눔을 실천하며 따뜻한 지역 공동체를 만드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고 있어 주변의 귀감이 되고 있다.

/군산=김만호 기자

**김제시 건축과, 영농철 맞이 농촌 일손돕기 나서**

김제시는 건축과 직원들이 지난 2일 농번기를 맞아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관내 농가를 찾아 농촌 일손 돕기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번 일손 돕기는 최근 농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그리고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해 작기 수확 및 영농에 차질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를 지원하고 공직사회가 앞장서 상생과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건축과 직원 14여명은 청하면 소재의 농가를 찾아 고추 잡초매트 깔기 등 작업을 진행하며 이른 아침부터 구슬땀을 흘렸다.

농가주는 "농번기에 일손 구하기가 어려워 걱정이 많았는데 직원들이 직접 찾아와 내 일처럼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준 덕분에 큰 시름을 덜었다"며 고마움을 표시했다.

김진영 건축과장은 "현장에서 농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조금이나마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상수도 민원 해결 헌신 전직 진안 공무원 별세**

진안군 상하수도과에 근무하던 전도균 경정(55)이 지난 1일, 18년여의 공직생활을 마무리하고 안타깝게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상수도 업무를 담당하며 누수·단수·급수 관련 민원은 물론 생수 배부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해결에 힘써 왔다.

특히 긴급 민원이 발생하면 휴일이나 야간을 가리지 않고 현장을 찾아 주민 불편을 해소하는 데 최선을 다한 것으로 알려졌다.

평소 강한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동료들의 신뢰를 받았던 고인은 많은 업무에 솔선수범하며 주민들의 안정적인 급수 환경 조성을 위해 헌신했다. 또한 청원경찰협의회장을 역임하며 동료들의 권익 향상과 화합을 위해서도 남다른 노력을 기울였다.

함께 근무했던 동료들은 "언제나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민원을 해결하려 노력했던 사람"이라며 휴일에도 현장을 먼저 찾은 만큼 책임감이 강했던 직원이라고 고인을 회상했다.

/진안=유태만 기자



**전주대 '창업 릴레이 기부' 이어져**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최근, 교육기업 '울소통'이 지역 창업 인재 양성과 대학의 창업지원 인프라 확장을 위한 '창업 릴레이 기부' 발전기금 500만원을 기탁했다고 밝혔다.

이번 발전기금은 교내 우수 학생 창업이 발굴·육성과 창업 인프라 확장 등 대학의 창업 지원 체계를 강화하는 데 활용될 예정이다.

울소통은 창업 교육 및 프로그램을 전문으로 운영하는 기업으로, 학생들이 창업에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제공하며 지역 창업 생태계 발전에 기여해 왔다. 또한 나눔 실천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꾸준히 이행하고 있다.

/김재훈 기자



**남원 여성새일센터, 콘텐츠 마케터 과정 수료**

남원시 여성새일하기센터는 스마트 브랜드 콘텐츠 마케터 양성 과정 디지털 콘텐츠 및 온라인 마케팅 분야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마련, 취업과 창업을 희망하는 지역 여성 20명을 대상으로 진행했으며, 교육 기간 중 조기 취업에 성공한 5명을 제외한 교육생 전원이 6월 2일 수료했다.

교육 과정은 브랜드 콘텐츠 기획, SNS 마케팅 영상·이미지 제작, 스마트스토어 운영, AI 활용 콘텐츠 제작 등 실무 중심으로 구성, 특히 교육생들은 지역 대표 축제인 '춘향제' 현장 실습과 연계한 프로젝트를 통해 굿즈 기획부터 제작, 판매까지 직접 수행하며 실무 경험과 현장 대응 역량을 다졌으며, 수익금 일부를 남원시사회복지관의 '마을공동밥상'에 기부했다.

센터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지역 행사와 연계한 현장 중심 실습과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지역과 상생하는 여성 일자리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 송동면, 사랑의 빵 나눔 활동 진행**



남원시 송동면은 1일 1가구 1소통행정을 추진하며 지역 내 취약계층 가구를 대상으로 사랑의 빵 나눔 활동을 진행했다.

이번 나눔은 남원시 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한 제빵나눔 프로그램 '같이의 가치-함께하면 좋은 세상' 3회차 활동의 일환으로, 꿈드레징에인협회 남원시지부(회장 임광호)가 참여했다.

이날 참여자들은 남원시 이백면 허브앤베이커리 제빵소에서 직접 총 250개의 빵을 만들고 정성껏 포장했으며 송동면은 해당 빵을 전달받아 독거노인 및 불량이 필요한 취약계층 가구를 직접 방문하여 빵을 전달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등 정서적 돌봄까지 연계하는 활동으로, 지역사회 돌봄 체계 강화와 고독감 해소에 큰 도움을 주었다.

/남원=김기두 기자

**고창교육지원청,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캠프**



고창교육지원청(교육장 한숙경)은 관내 특수교육대상학생 가족 및 인솔자 약 88명을 대상으로 지난 달 29일부터 30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와 한국인속촌에서 '2026년 특수교육지원센터 가족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가족캠프는 특수교육대상학생에게 다양한 콘텐츠와 교과 연계형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우리 문화와 역사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한편 가족 간 유대감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체험 중심 일정으로 운영돼 학생들의 자기주도적 경험을 넓히고, 다른 가족과의 교류를 통해 정서적 지지와 공감의 장을 여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한국인속촌과 에버랜드에서 전통문화 체험, 역사 이해 활동, 공공시설 이용 교육, 질서위식 및 안전수칙 실천 활동 등에 참여했다.

/고창=김영식 기자